

월요광장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정유진  
코리아컨설팅 대표

대화를 의도치 않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경우는 일상에서 생각보다 많다. 아닌 게 아니라 중학교에 입학한 아이에게 물어보니 요즘 아이들의 대화는 “X나”에서 시작해서 “X발”로 끝난다고 했다.

실제로 국립국어원에서 5년마다 실행해온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욕설은 46.9%, 비속어는 48.1%가 자주 또는 가끔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놀랍다.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기본 나뉘를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32.6%,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23.1%, 그리고 ‘친근감의 표현’이라는 응답자는 22%였다. 기본 나뉘를 표현하는데 욕을 사용하는 것은 점차 줄고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2005년 1.5%, 2010년 14.7%, 2015년 21.8%, 2020년 23.1%로 해가 거듭할 수록 증가하고 있다.

욕설과 비속어 사용이 습관이 되어 가고 아무 데서나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회와 개인의 일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은 요즘 욕이라도 한바탕 하면 속이 후련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욕은 자기 표현의 감탄사가 아니고 흥을 돋우기 위한 추임새가 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담은 말과 행동이 있고, 때와 장소에 따라 갖추어야 할 예의가 있다. 영국 사람들이 강조하는 매너처럼 말이다.

영화 킹스맨(Kingsman: The Secret Service, 2014)에서 주요 인물이 우산 하나로 무례한 악당을 혼

쫓내 주는 장면이 나오는 명대사가 있다. 보통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Manners Maketh Man)라고 직역되는 이 문장은 명문 윈체스터 칼리지의 표어로 1382년 학교를 설립한 교육자 와이케햄의 윌리엄(William of Wykeham)의 말이다. 매너는 상대방을 위한 존중의 마음 자세를 담은 태도와 언행으로, 인간의 도리이다. 타인을 배려하는 예의가 없다면 사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예절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나뉘 습관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로부터 주의를 받아 가며 배웠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은 습관과 예의범절을 이야기할 때면 누구나 한 번쯤 인용한다. 지각할 수 있는 순간부터 한 개인의 습관이 형성되고 그렇게 개인의 습관이 모여 한 사회의 관습적인 행동 양식이 만들어진다. 좋든 싫든 지어지지 않는 법이다.

한번 형성된 개인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가 매우 어렵듯이 한 사회에서 눈감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무례한 생활습관들은 고치기 힘들다. 마치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얻게 되는 성인병처럼 말이다. 이러한 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는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먼저 좋지 않은 생활 습관들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다면 사회와 개인의 삶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좋지 않은 언어습관을 어떻게 해야 할까. 병과 마찬가지로 치료제를 찾아 그러한 습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어른들의 무례한 습관에 화가 치미는 순간이 있다. 모처럼 아이가 외식을 위해 집 근처 고깃집에 갔다. 테이블 간 적절한 거리 두기를 위해 별도의 립오드 안대를 받고 식사를 시작했지만 이내 식욕을 잃고 말았다. 다음 아닌 옆 테이블 손님들의 대화 때문이었다. 30대로 보이는 남성 네 명은 그야말로 대화라고 듣기 어려운 큰 목소리로, 마치 욕설이 추임새라도 되는 듯 “X발”을 연거푸 내뿜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말을 건네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식사를 마친 그들이 먼저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며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식당 내 홀에서도 여기저기 비속어와 욕설이 뒤섞인 대화가 귀에 꽂히듯 들렸기 때문이다. 식사 예절에 관해선 충분히 배우고 가르치기도 했을 어른들의 식사 매너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식당의 어른들만 그런 걸까? 아이들과 청소년 사이에서도 약의(?) 없는 비속어 사용은 매우 일반적이다. 욕설은 쓸 수도 있는 것쯤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험한

수필의 향기

패배의 가치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도무지 되는 것이 없었다. 하는 족족 실패였다. 패배가 잡초라면 승리는 무성한 잡초 밭에 듦성듬성 핀 꽃 정도였다. 그러나 1할의 성공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고 그 9할이 내 삶을 밀고 끌고 왔던 것 같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패배는 내 땀방지에서 불쑥 나타나 호시탐탐 앞길을 가로막았다.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녀석이 낙방했다고 한다. 더 좋은 소식이 연달아 들어왔다. 녀석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다. 난 속으로 패배를 불렀다. 상심이 클 것이다. 나는 녀석이 합격하면 어찌지 되레 걱정을 했다. 이쯤해서 한 번쯤 쉬었다 가기를 바랐다.

패배를 만나면 싫든 좋든 함께 살아야 한다. 패배는 눈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경솔하지 않고, 겸손하게 타인을 이해하고 하유하게 해준다. 패배가 주는 선물이다. 그만큼 사유의 세계가 넓어지고 생각이 확장된 것이다.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없는 훨씬 더 소중한 지혜와 가치를 깨닫는다.

패배한 날은 누구나 늦게까지 잠 못 이룬다. 꿈꿨으면서 자기 생각과 행동을 복기한다. 그 패배는 쓰라릴수록 좋고 어디 몸 한구석이 쭈서 와 한 이삼일 앓아 누울 정도면 더욱 좋다. 그래서 진정, 머리로 세상을 살기보다 가슴으로 세상을 견어도록 한다. 승리의 기쁨은 얼굴에 나타난다면 패배는 그 아래로 쪽 내려와 가슴 깊은 곳의 통증을 건드린다.

그러면서 조금씩 동아반복의 문장과 비문이 보였다. 그리고 영성향 구성과 팽팽하지 못한 줄거리, 진부한

사유가 속속 얼굴을 드러냈다. 난 낙선이 주는 고통을 먹고 한 단계 뛰어오를 수 있었다.

인생 최대의 실패는 노력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말했듯이 썩지 않으면 언젠고 썩어 튼다. 철전받기는 시작도 아니다. 사는 일은 죽는 날까지 도전하는 일이다. 거듭 실패해도 도전할 힘이나 오기가 있다면 괜찮은 인생이다. 아홉 번 실패했다는 것은 아홉 번 도전했다는 말이다. 우리가 회피할 뿐이지, 실패는 성공보다 훨씬 가까이에서 더 많은 교훈을 준다.

썩 괜찮은 패배라고 격려해 주었다. 네가 좋아하는 네 아버지도 그리고 할아버지도, 또 이순신 장군도 그랬다고 했다. 열 손가락을 잃고서 비로소 8000미터 고산 도전을 시작한 한 등산가 이야기도 꺼냈다. 불가능이란 말을 그때부터 가능성으로 바꾸었다. 눈썹 하나라도 뺏고 가야 하는 도전, 난 그는 패배하지 않았다고 했다. 봄이면 빙벽을 뚫고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올 것으로 여긴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패배한다. 아니 매일 패배한다. 그러면서 매일 일어서고 또 내일을 꿈꾼다. 진정한 승자들은 그 수많은 패배에서 물줄기를 되돌려 승리를 만들어 간다. 사랑도 그렇다. 그냥 이루어지는 사랑은 없다. 사랑도 패배를 통해서 단단해진다.

우리 어찌 보면 완전한 실패나 영원한 승리가 없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냥 패배와 성공 사이를 오갈 뿐이다. 세상은 실상 승패를 가르는 곳도 아니다. 좀 앞서 가거나 뒤쳐졌을 뿐, 당시 의지에 따라 언젠고 앞뒤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이 멋진 것이다.

봄! 그리고 1cm의 변화

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것은 부족한 사람에게 나눔으로써 더 많은 파이를 만들어 내는 블루 오션이 최고의 선택이 되는 시대이다.

상생하기 위해서는 다름, 즉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생김새가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른 것처럼,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나만을 고집하고, 나만이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세상은 재미가 없어질 것이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맛깔나는 연기로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이나 단역 배우가 없다면 주인공은 빛이 나지 않는다. 우리 삶에서 때로는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조연과 단역이 되어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있어, 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다. 주위의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 하면 나에게도 그 아픔과 고난이 전이되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가 행복을 꿈꾼다.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권력 지향으로 행복해 하기도 한다. 그러나 행복의 개념을 이해하면 아주 쉽다. 행복은 만족과 즐거움이 있는 상태이다. 만족과 즐거움은 결국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다.

고정 관념과 습관은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습관은 참으로 무섭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더불어 성장하기보다는, 불편함을 참기보다는, 그동안 해 왔던 방식으로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다 보면 일방통행이 되고, 양비론과 양사론에 빠지게 되어 혼란이 온다.

김은주 작가는 “고정 관념을 1cm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고 했다. 특히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에 적응해야 한다. 새로움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 결정하는 자세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묘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종종 묻는다. “유망 직업이 무엇입니까?”라고. 그럴 때면 이렇게 대답한다. “평생 직업은 유일하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평생 직업은 딱 하나 있다. 작중과 관계없이 달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며, 아주 뛰어난 존재이다. TV에 출연한 달인을 보면 우리는 감탄한다. 재료를 보지도 않고 손질하는 셰프의 손길은 놀라움을 따름이다. 풍요로운 세상, 소소한 행복을 위해서는 불편하더라도 습관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만의 무기, 전문성을 키워 달인이 되는 것이다. 이 봄날처럼 누군가의 기쁨을 뛰게 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한다.

社說

막 오른 지방선거...주민 눈높이 맞는 공천을

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지역 입지자들의 예비 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공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엇그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광주시장 출마와 관련해 기간간 담회를 열고, 최치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광산구정당 출마를 선언했다. 전남에서도 이종호 국민의힘 영암·무안·신안 당협위원장도 전남지사 선거에, 서재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강진군수에 출사표를 던지는 등 출마 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예비 후보 등록도 잇따라 전남에서는 현재 450여 명이 마쳤고, 광주에서는 마감일까지 250여 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지난주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 후보자 공모안을 공고하고 후보자 검증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강력범

죄, 음주운전(윤창호법 이후), 뽕소니, 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7대 범죄 경력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인사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광주·전남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으로 사실상 일당 독점 구도가 30년 이상 반복되고 있다. 그만큼 민주당의 책임이 크지만, 상당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각종 비위로 사법 처리되거나 수준 이하의 행정·의정을 펼치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최근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받고 있다. 그 출발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 혁신을 이뤄 내는 것이다. 청년·여성·정치 신인 등의 공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 있는 후보들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이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 총장로 재생 마중물로

호남 지역 최대의 중심 상권으로 경제·금융 활동의 축이었던 총장로·금남로 일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활기를 잃고 있다. 총장로 상권은 지난 2005년 전남도청의 이전으로 큰 타격을 입은 데 이어 광주의 상권이 상무·수완·철단 지구 등으로 다원화되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다. 여기에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그나마 남아 있는 상권마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총장로 일대를 찾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서너 가게 중 하나는 폐업 중인 상황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한때 무등극장이 있던 삼거리 골목 일대는 1층 점포만을 놓고 보더라도, 영업 중인 곳보다 폐업한 곳이 더 많다. 광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광주우체국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4층짜리 건물 전체가 공실인 채 ‘임대’라는 현수막만 걸려 있다.

또한 5년 전만 해도 1층 상가는 권리금이 이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5억 원까지

불었지만 현재는 권리금을 내걸고는 임대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우리론에 빨간 글씨로 ‘권리금 없음’이라는 광고문을 부착한 가게가 많은 이유이다. 총장로 상권의 침체는 인근 500개 가까운 상점이 모여 있는 금남·충곡 지하상가에까지 영향을 미쳐 이곳 역시 공실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총장로 상인들은 광주 동구가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총장로와 금남·충곡 지하상가를 지하·지상으로 이어 입체 상가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총장로 일대를 활성화시키려면 유동 인구 외에도 체류형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다. 대대적인 상가 정비 및 주차장 확보와 함께 총장로 권역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동명동·대인 야시장 등을 연결하는 문화적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無等鼓

우리나라 국보 가운데 ‘이십공신회맹축’(二十功臣會盟軸)이라는 공신록이 있다. 무려 길이가 24m에 달하는 이 문서는 조선시대 공신들의 충성 맹세를 담고 있다. 1680년(숙종 20년) 8월 30일 열린 회맹제를 기념하고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제작됐다. 회맹제는 개국공신을 비롯해 역대 20명의 공신과 그 자손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며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이다.

조선의 역사는 출발부터 쿠데타의 역사였다. 1388년 명나라가

공신과 간신

절령 이복의 땅을 요동관 할에 두겠다고 통보하면 서 양국의 긴장이 고조됐 다. 최영은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요동정벌을 추진했지만 이성계는 현실론을 들어 반대했다. 우왕의 지시로 이성계는 출정을 하지만 압록강 위화도에서 회군한다. 개경에 진입한 이성계는 이후 왕을 폐위하는 등 사실상 고려의 정권을 장악한다. 장안의 화제인 드라마 ‘태종 이방원’은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앞장섰던 이방원을 조명하는 작품이다. 실권을 잡은 이방원은 외척 제거는 물론 ‘조선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마저 무참히 처형한다. 역성

혁명으로 개국한 조선은 왕자의 난, 사화, 반정과 같은 무력 충돌과 변란을 낳았다. 권력의 부정은 역설적으로 공신의 남발로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가 뉴스의 중심이 되면서 인수위원을 비롯한 핵심 측근(‘윤핵관’)의 언행도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일부 인사들이 쏟아내는 발언이 ‘점령군’처럼 비쳐진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 검찰총장 사퇴 압박 등의 행태는 오만하기 그지없다.

문화콘텐츠 창작자 이 성주는 저서 ‘모든 권력은 간신을 원한다’에서 윤원형, 김자점, 한명희 등 간신들을 분석한다. 저자는 간신을 왕이 허락해 만들어진 내부의 적으로 본다. 사실 공신과 간신은 종이 한 장 차이이다. 권력자를 바라보면 간신이고 국민을 바라보면 공신이다. 독일 금언에는 ‘군주가 과일 하나를 따면 그 수하들은 나무를 베는다’는 말이 있다. 혹여 윤 당선인 공신들이 0.7% 차이의 ‘참을 수 없는 승리의 가벼움’에 도취되어 ‘나무’까지 베려는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지. /박성진 문화부 부장skypark@

기고



남택문  
동강대 사회복지과 교수

계절은 기후 변화 위기 속에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 봄이다! 봄은 우리에게 다양한 생각과 사고를 재촉한다. 얼어붙은 겨울의 흑한을 견디어 낸 만물이 살아 있음을 알리는 계절이다.

역대 가장 치열했던 20대 대선이 끝나고, 앞으로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이 선택되었다. 우리나라의 앞날에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다. 어땠든 우리 국민이 선택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한 리더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후보일지라도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함께 책임져야만 한다. 할 말은 많아도 정치 이야기는 그만하고 싶다. 하지만 지켜볼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조지능과 초연결의 시대이다. 너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연대를 통해 윈윈(win-win)하고 상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부족한 부분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